



의 고대와는 많이 달랐다. 그렇지만 이상적 예치사회를 구현하려던 조선의 예학자들은 고제(古制)의 해석에 있어 준용과 절충을 통해 조선에도 적용 가능한 묘침(廟寢)이론들을 고민해 갔다. 따라서, 예서상의 고제(古制)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과거 건축조영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데 있어서 선결적인 과제가 되며, 특히 유학자들 고유의 건축영역인 서원건축의 연구에 있어 폭 넓은 이해의 폭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제도적 굴레에 의해 획일적인 공간구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현대의 학교건축에도 과거 선조들의 고민이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지하다시피 서원(書院)은 조선 중기 등장한 조선시대의 대표적 교육공간으로, 학문을 수양하는 본기능 외에도 지역 유림(儒林)들의 정치·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집회소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학파·당파·문중갈등의 진원지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학파·문중에 의한 세도정치를 타파하고자 했던 흥선대원군은 1871년에 47개소의 서원만 남겨두고 모두 훼철(毀撤)시켜 버렸다.<sup>1)</sup> 또한 철거를 면했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전소되거나, 강학기능을 상실하여 변형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서원의 공간적 연구는 현존하고 있는 서원들의 배치와 공간형태를 그대로 분석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고문헌과 발굴조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변화양상을 고려한 입체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학자들의 통시적 이론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유교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서원건축의 원론적인 건축개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극히 제한적이지만 기록을 통해 묘침 이론으로 영건되었다고 하는 일부 건축물의 공간분석을 통해 서원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보고자 한다.

## II. 유학 및 서원의 역사적 배경

### II-1. 유학의 태동과 발전

유학(儒學)은 중국 춘추시대의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

1) 서원에 대한 폐단은 일찍이 숙종 후반부터 제기되어 서원 증가에 대한 금령(禁令)이 내려진 바가 있으며, 영조 17년(1741년)에는 19개 서원을 포함하여 173개 사우가 훼철된 적도 있다. (「서원등록(書院謄錄)」 참고)

잡으려 인(仁)과 예(禮)를 설파한 공자(公子, BC 551~479년)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제자들에 의해 이론적인 체계성을 갖추어나갔으나 전국시대 말기에는 분서갱유로 인해 일시 쇠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당대(漢唐代)에는 사라진 경전을 수집·정리하고, 그 자구(字句)에 대한 주(注)와 해석을 주로 하는 훈고학(訓詁學)이 발전하면서 고전(古典)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특히 후한 말기의 정현(鄭玄, 127~200)은 예학(禮學)분야의 선구자로서, 삼례(三禮)<sup>2)</sup>를 주해(註解)함으로써, 금고문(今古文) 논쟁<sup>3)</sup>을 종식시키고 동방서실, 명당, 노침, 동제 등 유교적 굴레 안에서의 건축규범들을 논정하였다. 이후, 당대(唐代)의 가공언(賈公彦)을 거쳐 송대(宋代)에 이르면, 고전의 이해를 넘어서 만물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가 이루어졌다.

남송(南宋)의 주희(朱熹, 1130~1200년)는 1190년에 대학·논어·맹자·중용을 해석하여 '사자(四子)'라는 이름으로 간행함으로써, 올바른 이치(理)와 인간 본성으로 내면화된 성(性)에 대해 철학적인 틀을 만들었다. 주희의 이데올로기는 우주(宇宙)의 생성(生成)과 구조(構造), 인간 심성(心性)의 본질, 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세(姿勢) 등에 관해 깊이 사색함으로써, 한당시대의 훈고학이 다루지 못하였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이고 실천적인 성향의 주자학을 형성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로 인해 후대사람들은 주희를 주자(朱子)로 격상하여 유학을 대표하는 현인(賢人)으로 추앙하고 있다. 그는 이상적인 사회로 인식되던 고대 주(周)나라의 제도를 상고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sup>4)</sup>를 저술함으로써 조선 중기 예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위상을 가졌다. 주자학은 기본적으로 만물을 심성(性)과 이성(理)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성리학(性理學)의 갈래이지만, 주자의 영향력 때문에 통상적으로 성리학과 주자학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조선시대가 추구

2) 「주례」, 「의례」, 「예기」를 말함.

3) 한대(漢代)의 경학은 크게 경전 그대로를 이해하고자 했던 고문(古文)과 오늘날의 글이라는 뜻의 금문(今文)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학풍에 따라 공양학과 좌씨학으로 구분하여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4) 최경훈(2018). 조선시대 주자대전의 간행에 관한 고찰. 한국서지학회, 본 연구는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주자대전(朱子大全)」을 함께 인용하는데, 우선 「주자가례」는 주자가 예법의장에 대해 상술한 예서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보급되었다. 반면 「주자대전」은 주자의 문집으로 총 121권에 달하기 때문에 16세기에나 보급될 수 있었다.

했던 주자성리학의 사회질서는 일시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시간에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주자가례」가 널리 장려□보급되었지만, 불교와 민간신앙에 의한 습속(習俗)들에 의해 15세기 말엽까지 사회 전반을 구속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543년에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주자대전(朱子大全)」이 대량 간행되면서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었다.<sup>5)</sup> 다만, 이 책은 본래부터 난해한 내용인데다가 총 121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 때문에 오기(誤記)가 많았다. 이에, 국내의 대표적인 예학자들은 앞 다투어 「주자대전」을 교정□주석□증보하여 예서들을 발간했으며, 이로 인해 주자성리학은 16세기부터 사회전반의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II-2. 서원의 등장과 발전

역사적으로 중화(中華)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되어 있던 우리나라는 불교의 종교적인 세계관으로는 답을 수 없는 행정□사회 분야를 유학이 대체하면서, 일찍부터 관련 교육시설이 존재했다.

이후, 원 간섭기를 지나면서 성리학이 전래됨에 따라 신진사대부가 부상하게 되는데, 일부 급진파가 역성혁명의 주체로 역할하면서 성리학으로 귀결되는 조선을 건국하였다. 다만 건국 초기에는 국가진흥책의 일환으로 성균관과 향교를 바탕으로 한 관학(官學)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15세기부터는 교육환경이 몹시 혼탁해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세종 연간(1445년)에 편성된 충순위(忠順衛)는 임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벼슬을 얻었기 때문에 교풍을 크게 흐트르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사육신의 거사실패는 집현전 폐지와 성균관 및 사부학당의 직접적인 몰락을 야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지방 향교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와 맞물려 발생한 사화(士禍)는 많은 유학자들을 향촌에 은거하게 만들었는데, ‘사림(士林)’으로 불리는 이 집단은 성리학적 이상 사회 실현을 위한 학문의 수양과 더불어 유향소를 통해 지방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한편,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봉은 중종 38년(1543년)에 향촌 교화책의 하나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하였다. 이는 주자가 남강군의 지사가 되었을

때, 스스로 이 지역에 위치해 있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부흥시키고 원장이 되었던 일을 참고한 것이다. 주세봉에 이어 풍기군수가 된 퇴계는 백성들의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사림(士林)들의 습속(習俗)을 바로잡고 학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도장으로 중국에서부터 발달해온 서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역설하면서, 2년 뒤에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의 사액을 이끌었다. 사액서원은 왕명으로 내려지는 조치이므로, 국가를 통해 면세되는 토지를 지급받을 뿐 아니라 공식기관에서 간행되는 서적의 배급, 노비 등도 지급되었다. 명종의 입장에서는 앞선 이유들로 무너져 가는 관학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사림들의 자발적인 교육에 기대는 편이 투자비용 효과가 더 크리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흥선대원군의 철폐 때까지 전국적으로 900여 개소에 달하는 서원□사우가 건립되었다.<sup>6)</sup>

## II-3. 서원의 일반적 특징

기본적으로 향교와 서원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학공간과 선현들을 봉사(奉事)하기 위한 제향공간으로 구분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유교의 예제적 질서체계에 따른 것으로, 예를 갖추어야 슬기로움도 뒤따른다고 보았던 것에서 기인한다. 다만 서원의 경우에는 제향의 대상이 성현(聖賢)이 아닌 선현(先賢)이라는 점, 설립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림이라는 점에서 관학인 향교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입지부터 고을의 중심권역에 위치하는 향교와 다르게, 서원은 읍치와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간적으로 보면 향교가 배향자의 설위 수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것에 비해 제도적인 제약이 적기 때문에 배치형식에 있어서 개인의 이념이 투영되기 용이했다. 그리고 배향인원 자체가 많지 않아 제향공간에서의 무(廡)가 생략되었다. 또한, 향교가 일반적으로 남북자오선(南北子午線)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것에 반해, 서원은 절대향보다는 지형에 따라 비교적 자유로운 배치형식을 갖는다. 그리고 성균관이나 일부 향교에서 보이는 이른바 ‘전묘후학<sup>7)</sup>’의 배치사례도 서원에

5) 최경훈(2018). 상계서. 김안국이 국내에서 최초 간행한 「주자대전」은 1460년에 중국의 「회암선생주자대전(晦庵先生朱子大全)」을 저본(底本)으로 하고 있다.

6) 서원의 숫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후기에는 서원과 사우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록」□「문헌비고」등의 기록을 참고하면 약 909개의 서원 및 사우가 존재했고, 이 중 270개가 사액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강학영역은 향교와 동일하게 강당과 재(齋)의 관계에 따라 소위 ‘전재후당’과 ‘전당후재’의 배치로 구분된다. 전재후당 형식이 전국에서 보이는 보편적 배치형태인 것에 반해, 호남지역의 향교 서원에서는 전당후재 형식이 많다. 이는 지역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Figure1. Placement of the Jeonjaehhidang(Left) and Jeondanghudang(Right)

#### II-4. 서원의 시기적 특징

16세기의 서원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배치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17~18세기에 이르면 일정한 전형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시기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개략적으로나마 시대적인 흐름을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김지민 교수의 시기 구분을 인용하고자 한다.<sup>8)</sup>

Table1. Th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the seowon

구분	시기	성격
제1기	16C 중~17C 초	장수 우위시대(강학>제향)
제2기	17C~18C	향사 우위시대(강학≤제향)
제3기	19C~	서원 남설 규제(훼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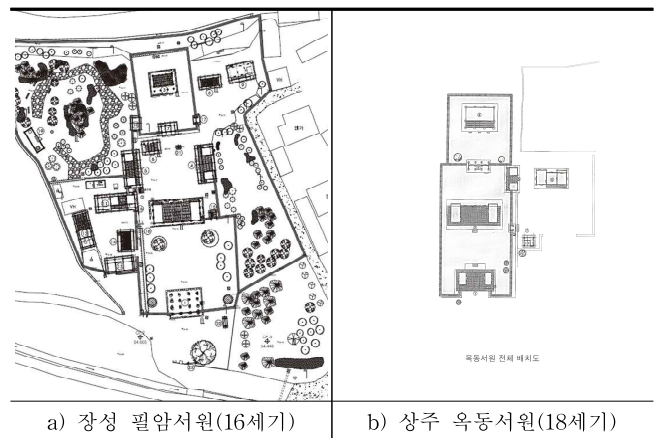
우선적으로 초창기의 서원들은 강학공간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퇴계가 건립에 영향을 끼친 16세기 중반의 이산서원□면경서원 등은 사당 없이 강학공간만 갖추고 건립되었다가 퇴계 사후에나 사당을 세우고 퇴계를 배향한 서원들이다. 반면 제2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이후에는 제향공간이 넓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강학공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유식

7) 사당이 강당 전면에 놓이는 배치형식을 말함.

8) 김지민(1993). 「한국의 유교건축」. 94~99.

을 위한 누각 등의 건립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재실도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었다. 이로 인해 누각 등을 거쳐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적 공간이 상당수 생략되었다. 19세기인 순조□헌종□철종대에는 신규서원의 건립도 둔화되었고 서원철폐령에 의해 모두 훼철되었기 때문에 원형의 배치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18세기부터는 서원에서의 강학기능이 쇠퇴하고 여론 집회의 기능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19세기의 서원들 역시 사당과 강당으로만 구성된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2. Comparison of Seowon in the 16th and 18th century



### III. 묘침제의 이해

#### III-1. 묘침제의 발전과정

오늘날 예(禮)란 ‘대인 관계에서의 바람직한 행위’라는 극히 좁은 뜻으로 이해되지만, 본래의 의미는 아주 넓고 포괄적이어서 크게는 국가의 조직□제도 및 관혼상제의 의식부터 일상생활에서의 윤리적 생활원리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범주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禮)에 대한 이해는 유학자들의 필수적인 고민거리였고 이에 따른 이론의 정립도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져왔다. 공자는 유교의 최고이념인 인(仁)을 정의할 때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오는 것<sup>9)</sup>’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 질서가 곧 예(禮)라고 하였다. 훈고학이 발달했던 중국 한당대(漢唐代)부터 유교적 예치사회를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대 중국(하□상□주)의 건축

9) 진형중(2018). 顏淵問仁 子曰克己復禮爲仁(「논어」). 풀빛, 59.

적 규범이었던 궁실제(宮室制)에 대한 학문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송대(宋代)에 이르러 실천적 학문경향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실제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sup>10)</sup> 이러한 궁실제는 크게 ‘명당(明堂)’과 ‘묘침(廟寢)’으로 분류되는데, 명당은 천자만의 건축형식이기 때문에 서원에 적용될 일은 없었고, 공적공간인 ‘묘(廟)’와 사적공간인 ‘침(寢)’의 관계에 대한 이른바 ‘묘침제(廟寢制)’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 초기에도 궁궐이나 종묘의 조영에 있어서 예서(禮書)들을 참고하였으나 중국의 고대제도를 어느 정도 상고하였을 뿐 실제로 똑같이 짓지는 않았다.<sup>11)</sup> 이에 대해 퇴계(退溪)는 “중국 사람들 집에는 다 정침(正寢)이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정침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sup>12)</sup>”고 하였으므로, 16세기까지 예서상의 고제(古制)란 이상적인 이론일 뿐 실제 조선시대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임란 때 불탄 종묘 재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본래대로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로 재건할 것인지<sup>13)</sup>, 혹은 고제(古制)에 의한 묘침제로 복원할 것인지 논쟁이 발생했다. 비록 종묘 재건은 묘침제에 의해 소목(昭穆)을 배치할 경우 상당한 공역이 들어간다는 점과, 조선의 세실이 고제보다 증가하여 이것의 처리가 묘침제로는 쉽지 않다는 점, 기존의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 역시 한나라부터 정립되어 온 예제라는 일부 대신들의 반대논리에 따라 묘침제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이때의 논의를 바탕으로 17세기의 예학자들에게는 고제의 건축형식에 대해 이해를

10) 정기철(1999).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경복궁에 대해 궁실의 제도를 중화와 같이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주례」, 「곡양전」, 「예기」 등에 천자는 6개 침을 갖고, 제후의 경우는 3개 침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침(燕寢)인 강녕전과 소침(小寢)인 연생전□경성전 등이 영건되었다.

12) 우리나라의 경우, 사랑채가 정침과 연침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고 있고, 중국과는 다르게 이미 좌식의 생활방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13) 동당이실제란, 하나의 건물에 신위를 모시는 감실을 따로 만들어 여러 신위를 동시에 모시는 제도로, 서쪽부터 차례대로 신위를 배치하기 때문에 실수(室數)의 증가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형식이다. 단지 건축물의 측면을 헐어내고 새로운 부분을 잇대어 붙이는 방식이므로 각 건물마다 신위를 모시는 묘침제보다 공역과 재정적 측면에서 용이하다.

넘어 실험과 실제 영건에 이르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성을 갖게 하였다.

### III-2. 묘침제의 건축형식

‘묘침제(廟寢制)’는 공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묘(廟)와 비공식적인 연거(燕居) 활동이 이루어지는 침(寢), 그리고 그 일곽을 둘러싸는 문(門)과 담으로 이루어진 건축형식으로 정리된다. 묘(廟)는 산자의 공간의 적용될 경우 정침, 노침 등의 이름으로 정사를 하거나 재계를 하는 의식적 공간이 되고, 죽은 자의 공간에서 적용되면 신주를 봉안하고 제례를 올리는 행례공간이 된다. 반면 침(寢)은 산자의 공간에서는 연침 등 연거의 공간이 되고, 죽은 자의 공간에서는 유물을 안치하는 장소가 된다.<sup>14)</sup> 묘침이란 것이 해석에 있어 다양한 논쟁을 야기한 만큼 명확한 명제를 세울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강학영역은 묘(廟), 제향영역은 침(寢)으로 대변된다.

Table3. Space Classification of Myochim theory

구분	성격	내용	비고
묘(廟)	生	정사공간, 의식공간	정침□노침 등
	死	행례공간	마당□전퇴 등
침(寢)	生	연거공간, 일상공간	연침 등
	死	봉안처	감실 등
문(門)		출입문 및 일곽 담장	외문□내문

‘묘침제(廟寢制)’는 시대별로 다양한 학자들의 담론을 거쳐 형성되어 갔다. 그렇게 합의된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대에 와서 한 연구는 개략적으로 배치□평면□신분에 의한 형식으로 구분한 바 있다.<sup>15)</sup> 우선 배치적 측면에서 문(門)→묘(廟)→침(寢)의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위계와도 관련이 있어서 행례의 공간이 되는 묘(廟)가 일상적 공간인 침(寢)보다 높은 위계를 부여받아 전면에 위치하게 된다. 이른바 ‘전묘후침(前廟後寢)’의 형식이다. 경복궁을 예시로 들면, 행사시에 이용하는 근정전이 실제 집무공간인 강녕전보다 전면에 위치하는 형태이다. 다만 통념적인 위계설정은 낮은 곳에서 점진적으로 위로 상승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경사지를 활용해 후면을 높은 위계로 설정했던 향교나 서원에서는 새삼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당시 예학자들은 위계 설정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행

14) 정기철(1999).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6.

15) 정기철(1999). 상거서.

례가 이루어지는 전퇴 및 마당공간을 묘(廟), 신주를 보관하고 있는 사당 내부는 침(寢)으로 보는 식으로 풀이하였다. 즉, 직접적으로 귀신과 접하는 행례공간이 단순히 신주만을 모시고 있는 공간보다 위계가 높다는 개념이다. 한편, 건축물의 평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묘침제의 관점에서 '전당후실제(前堂後室制)'가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마당→당(堂)→실(室)에 이르는 배치가 정립되었다. 끝으로 전옥하옥제는 신분에 의한 건축형식이다. 크게 지붕형식과 평면형식을 구분 짓는데, 전자는 당우제(堂宇制)□후자는 방실제(房室制)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는 지붕형식은 천자□제후의 전옥(殿屋)에 대응하여 경□대부□사(卿□大夫□士)에게 하옥(廈屋)이 허락되는데, 지붕형태와 목가구체계는 서로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룻대(棟), 중도리(楹), 처마도리(殿)로 구성되는 5량집(五梁屋)까지가 규정으로 제시되었다.<sup>16)</sup> 당(堂)에서 행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적정공간은 최소한 5량가 구조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평면형식에 대해서는 방실제(房室制)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유형에 따라서 좌□우에 방과실이 배치되는 유형과, 서쪽에는 실, 동쪽에는 방이 있는 이른바 '동방서실(東房西室)'로 세분된다. 우선 주자는 전옥하옥(殿屋廈屋)을 말하면서, 사대부 묘침제는 「예기」에 따라 동방서실(東房西室)을 제시하고 있다.

Table4. The type of architecture style of Myochim theory for seowon

형식	유형	내용	비고
배치	전묘후침제(前廟後寢制)	◦ 문+묘+침(門+廟+寢)	-
평면	전당후실제(前堂後室制)	◦ 당실제(堂室制)	당□실□방□협□문□정
신분	전옥하옥제(殿屋廈屋制)	◦ 당우제(堂宇制, 지붕형식)	하옥제 <sup>17)</sup> (廈屋制)
		◦ 방실제(房室制, 평면형식)	동방서실(東房西室)

묘침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학자들은 실공간마다 다양한 명칭과 의미를 부여했다. 대부분 중국에서 기원하는 용어들은 다음의 Table5와 같다.

16) 정기철, 심우갑(1998). 주자대전 의례석공 연구. 대한건축학회, 묘침제 자체가 목구조가 완숙한 발전단계에 상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5량집과 현대 의미의 5량가는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고제에 따른 오량집은 벽이 내력벽 역할을 하고 벽 위에 도리가 올라가는 구조라 조선시대와 같이 기둥 위에서 도리가 걸구되지는 않았다.  
17) 하옥(廈屋)은 경□대부□사(卿□大夫□士)의 지붕형식으로, 천자와 제후의 지붕형식인 전옥(殿屋)과 구분됨.

Table5. Main detailed terms of the ancient court system

용어	주요내용
상(廡)	협실의 앞쪽 공간(동당□서당으로 구분)
서(序)	당(堂)의 좌□우 벽
유(牖)	나무로 만든 교자창
유(霽)	낙수받이의 일종(전옥은 4면 설치, 하옥은 2면 설치)
오(奧)	방의 서남쪽 구석
환(宦)	방의 동북쪽 구석
누(漏)	방의 서북쪽 구석(=이(宦))
동(棟)	용마루
비(碑)	행례를 치르는 공간에 세운 나무, 비석 등
진(陳)	당(堂)에 이르는 길
호(戶)	지계문, 반문(半門)
숙(塾)	숙식하는 공간
영(楹)	독립된 기둥(주(柱)와 개념적으로 상이)
영(榮)	처마의 동서 양끝이 솟아오른 것(지붕 날개)
류(霽)	낙수받이의 일종으로 추정
계(階)	조계(동쪽계단, 阼階), 서계(西階), 측계(側階)
정(庭)	마당
동(棟)	중도리
미(楣)	중도리
기(殿)	처마도리

※ 의례석공□가례집람□상변통고 등 다수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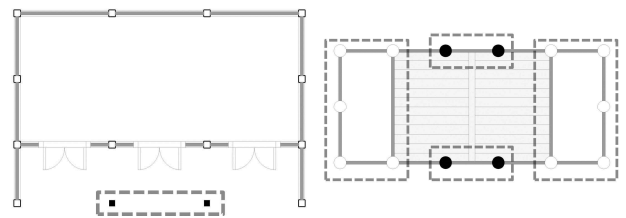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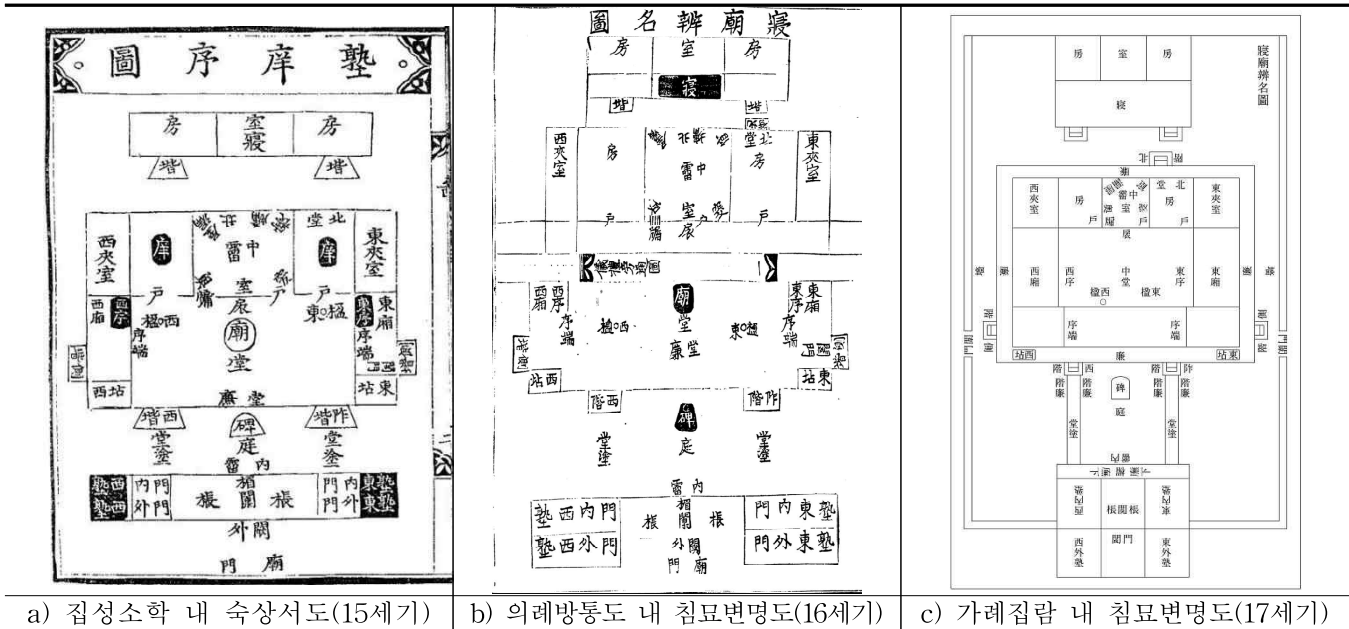
Figure2. The concept of Yang-Young according to Myochim theory

묘침제의 다양한 세부규정 중에서도 몇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을 꼽자면, 당(堂)은 좌·우에 협실을 두고 벽을 만들어야 하며, 당 전면의 기둥 2개는 벽체와 맞닿지 않게 서로 외롭게 대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양영(兩楹)'이라 하는데 공자의 서거(逝去)와도 관련이 있어 유교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깊다.<sup>18)</sup> 서원 건축에서는 강당에 적용될 경우 정면 5칸으로 구성하여 어칸 기둥 2개를 벽 없이 세워두었다. 따라서 이것을 양영으로 볼 수 있고 대다수 강당에서 보이는 중당협실의 배경도 설명이 된다. 반면 사우의 경우는 주자가 이미 '3칸'과 '5가(五架)'라고 규정해두었으므로 강당처럼 5칸으로 조영할 수 없었다.<sup>19)</sup> 이러한 근간에서 대다수 사우에서 보이는 정면 3칸의 공간구성과 퇴칸 기둥열들이 과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8) 공자가 꿈에 양영에 앉아 케향(제사음식)을 받은 일을 두고 곧 사망을 암시했다고 함.(예기 단궁(檀弓) 참고)

19) 小五架屋(주자가례 1권, 통례)

Table6. Schematic diagram of Myochim theory



a) 집성소학 내 숙상서도(15세기)

b) 의례방통도 내 침묘변명도(16세기)

c) 가례집람 내 침묘변명도(17세기)

### III-3. 묘침제의 세부항목

조선시대 예서의 편찬은 곧 과거 궁실제에 대한 논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모든 예서에서 묘침제가 다루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서가 많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예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궁실제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Figure1은 박동우의 연구결과<sup>20)</sup>를 토대로 주자가례 관련 시대별 저작 목록을 협의적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전체 예서의 간행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16~18세기에 집중된 예학 연구에 대한 동향을 개략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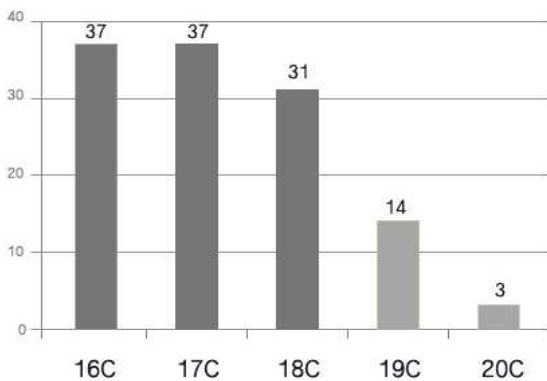


Figure3. List of works related to the age-specific ZhuZigatye

Table7. The Process of the Advancement of the Yehak in the Chosun Dynasty

구분	내용	주요 예서
15C	국가전례의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주자가례, 국조오례의
16C	주자대전 보급→묘침 연구 심화	주자서절요, 가례주설
17C	예학의 시대, 묘침이론의 절정기	가례집람, 주자대전차의
18C	학동별로 묘침에 대한 집대성	가례증해, 상변통고
19C	이전 예제에 대한 증보(연구 고착화)	사례편람, 사례집요

한편, 묘침제는 오랜 기간의 담론만큼이나 무수히 많은 예서에서 다루어져왔다. 특히 주자를 비롯하여 정현□가공언 등의 주석과 양복의 「의례방통도」나 하사신의 「소학집성」에 수록된 묘침 관련 도설(圖說)들은 조선 묘침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묘침제와 관련한 많은 기록 중에서도 「의례석궁」은 묘침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완결된 형식의 서술을 보여준다. 배치방식을 포함하여 신분별로 가능한 건축형식, 구조 및 장식(지붕형태, 5량가, 중도리 등), 평면형태를 모두 포함하여 창호와 계단의 위치 및 기능까지 규정하고 있다<sup>21)</sup>. 사실 「의례석궁」은 송대(宋代) 이어규(李如圭)가 저술한 것인데, 주자 문집(주자대전)에 잘못 수록되는 바람에 조선의 예학자들은 주자의 기록으로 오인하고 철저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의례석궁의 내용들을 기초

20) 박동우(2010). 家禮 註釋書を 통해 본 朝鮮 禮學의 進展過程. 한국동양철학회.

21) 정기철, 심우갑(1998). 「주자대전 의례석궁 연구」. 대한건축역사학회.



로 조선 실정에 맞는 자구적 해석들이 등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학풍적 성향이나 시대별 이해과정에 따라 다양한 담론(談論)이 발생하였다.

#### IV. 묘침제의 실제적용

##### IV-1. 묘침제의 적용

묘침제의 실제 적용에 대해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소론의 영수 윤증은 1626년 건립된 황산서원이 30년이 지나 낙후하자 중창에 대한 발문을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Table8. Hwangsanseowon jungsutongmun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가옥 제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주자(朱子)가 저술한 석궁편(釋宮篇)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옛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비 중에 뜻이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 대부분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경(禮經)에서 말한 가옥의 명칭과 출입문의 향배(向背)에 대해서는 무지하게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이는 실로 비루한 습속이라 하겠습니까. 사계 선생은 이 점을 두렵게 여기시고 이 서원을 건립할 때 실로 옛 제도를 상고하여 지침을 내려 주었으니, 지금 사당 앞에 있는 강당(講堂)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방(房), 실(室), 당(堂), 숙(塾)의 위치와 오(輿), 요(宍), 환(宦), 누(漏)의 명칭을 차례대로 한결같이 옛 명칭 그대로 복구하여 분명하게 고제(古制)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하였으며, 그 뒤에 돈암서원(遯巖書院)이 또한 이를 모방하여 만든 서원입니다. 이는 대체로 전에는 없던 것으로 동방을 통틀어 오직 이 두 곳에만 있습니다.”<sup>22)</sup>

(한국고전번역원, 이기찬 역)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윤증이 보기에 17세기 중반까지 묘침제에 따라 제대로 영건된 서원은 황산서원(죽림서원)과, 돈암서원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제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2) 명재유고. 31. 三代宮廬之制. 幸而備具於朱夫子所述釋宮之篇. 而人不好古. 士鮮有志. 特以古今異宜而莫之考. 故其於禮經所稱室宇之名目. 出入之向背. 懵懵焉莫之知. 此誠習俗之陋也. 先生爲是之懼. 其經始斯院也. 實按古而授矩焉. 今廟前講堂是也. 於是房室堂塾之位. 輿突甬漏之名. 秩然一復乎古. 而瞭然目擊而身履焉. 厥後遯巖. 亦倣此而爲之. 蓋前昔之所未有. 而環東土唯此兩區而已. 夫以其邦建之義如彼其重

##### IV-2. 묘침제의 연구계통

흔히 사림의 계통을 지역적으로는 크게 기호학과 영남학파로 구분한다. 다만, 조선시대 학통의 정립은 순수한 학문적 인식의 차이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하나의 학통에는 지역적·혈연적으로 매우 다양한 학맥이 결합된 양상을 보이고, 학파를 초월해서 사제관계를 맺는 경우도 빈번하며, 같은 학통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상황에 의해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해서 단순히 기호와 영남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묘침제의 인식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소수서원처럼 초기의 서원들은 건립에 있어 학통을 초월하여 범사림적인 움직임이 보여 왔다는 것도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와 영남계의 학풍적 성향을 통해 묘침제를 보는 이유는 건축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써 이해되는 요인이고, 후대에 이르면 두 학통 간에 일정한 차이가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묘침에 대한 본격적 학문연구는 영남과 기호를 형성한 퇴계 등의 학통 1세대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전에도 김종직의 「선공제의」나 이언적의 「봉선잡의」 등의 예서가 집필되었지만 「주자가례」에 명시된 의식 절차를 지속의 형편에 따라 살필 뿐, 건축적 내용인 묘침제를 함의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퇴계는 「주자대전」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본격적인 예학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서원건축의 초기 틀을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기호학파의 종장이라 할 수 있는 율곡은 예서로 「격몽요결」을 남겼지만, 짧은 생애 탓에 묘침에 대해 정밀하게 상고(相考)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기호사림의 묘침 연구는 하서 김인후와 구봉 송익필로부터 출발한다. 우선 김인후는 서원은 아니지만 가묘 건립에 있어 묘침제의 적용을 실험해보았으며, 구봉 송익필은 「가례주설」을 저술하면서 묘침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양복의 「의례방통도」 등 묘침과 관련한 중요 서적이 국내에 알려지면서<sup>23)</sup> 심화단계에 이를 수 있었다. 기호계열의 묘침이론은 사계 김장생을 통해 집대성되었고, 기호사림의 적통인 우암 송시열과 그 직계인 권상하·김창협까지 전승되었다. 이들은 황산서원(1626년 창건), 돈암서원(1634년 창건), 신행서원(1673년 중수), 상현서원

23) 주자의 제자 양복이 집필한 의례서로, 1584년에 학봉 김성일이 국내에 간행하면서 묘침제의 기본으로서 널리 쓰였다.



(1672년 이견), 만동묘(1703년 창건)의 구성에 있어 「주자대전」의 유행들을 철저히 따랐다. 그 중에서도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계열은 주자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고제의 적용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영남계열은 퇴계의 학풍을 비교적 잘 유지했다. 퇴계는 본격적으로 주자의 시대를 연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그의 예설이 주자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시속(時俗)에 따라 주례□고례□시왕례 등을 두루 살피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제자들이 묘침에 대해 물어오면 오히려 고제는 시대와 맞지 않음을 염려하였다.<sup>24)</sup> 영남사람은 선대의 학풍에 따라 묘침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김장생 이후 철저히 주자만을 따른 기호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영남계열의 묘침제 연구는 퇴계 사후 크게 5가지 갈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퇴계의 적통을 잇는 학봉 김성일 계통, 정개청으로 이어지는 유성룡 계통, 「가례고증」을 저술한 조호익 계통, 한강 정구에서 황중해와 허목 등으로 이어진 근기남인의 계통, 그리고 영남학과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주자 묘침제를 적용하고자 했던 용졸재 신식 등이 있다. 한편, 19세기의 조병덕은 “노론은 증해를 사용하고 남인은 통고를 사용한다.”고 하였다.<sup>25)</sup> 즉, 기호사람의 예서는 「가례증해」, 영남사람은 「상변통고」를 통해 예서 연구가 집대성되었으며, 사실상 18세기까지가 조선예학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세기에 접어들면 주자성리학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외부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고제의 묘침제는 이상적인 이론으로만 자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고제에 따른 묘침제의 적용은 철저한 주자논리로 무장한 김장생□송시열에 이르는 기호계열이 실천주의를 바탕으로 주도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예서 편찬은 정쟁에서 밀린 영남사람들이 주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묘침을 적용했던 기호사람은 송시열 때 정점에 오르고 나서부터 오히

24) 퇴계의 실용적 건축관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예로, 고제를 습속에 맞게 변통하여 원묘제도를 고칠 것을 주청하였다는 것이다.(선조수정실록 1569년 1월 1일 3번째 기사 참조) 그가 단순하게 고제만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귀암 이정이가 주자가례의 묘침을 통한 조영법을 문자 이와 별개로 스스로 목구조를 뜯어 고치는 해결법을 알려주었다거나 한강 정구가 묘침제를 모방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자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염려한 일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25) 而老論用增解 南人用通放云矣(속재집 제5권)

려 상대적으로 주춤한 경향이 있다.<sup>26)</sup> 19세기에 이르면 양명학과 실학 등의 유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주자의 윤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묘침제에 대한 논의도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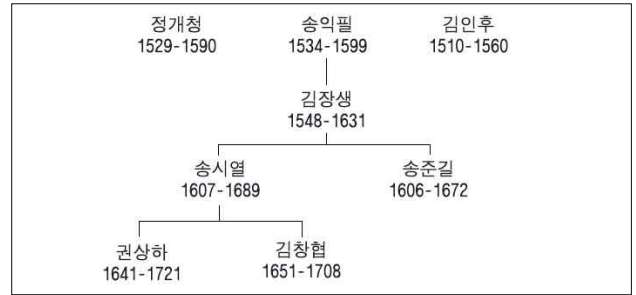


Figure4. Research schematic diagram of Gihosarim Myochim theory

Table9. Activity of Gihosarim Myochim

구분	생몰년	주요내용/세부내용
김인후	1510-1560	◦ 가묘 건립에 묘침제 실제 적용 → 사당을 정침의 동쪽에 건립
송익필	1534-1599	◦ 가례주설 집필, 중국 예서의 이해 → 의례의 묘침관계 및 서까래 상고
정개청	1529-1590	◦ 예서인 우득록(愚得錄) 저술 → 당실제도(강학공간)에 대한 검토
김장생	1548-1631	◦ 가례집람 집필, 지방에도 묘침 적용 → 종묘논의 주도, 황산서원 건립 주도
윤증	1629-1714	◦ 소론 형성(송시열과 대립) → 황산서원 중수 주도
송시열	1607-1689	◦ 주자대전차의 집필, 기호묘침 완성 → 돈암서원□청주향교 영건
권상하	1641-1721	◦ 주자대전차의 공동저술, 주자대전차의문목 저술 → 묘침에 의한 만동묘 건립, 상현서원 비판
김창협	1651-1708	◦ 주자대전차의 공동저술 → 송시열의 방·협실 병렬구성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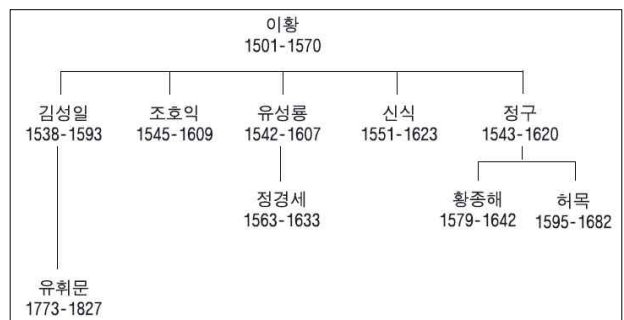


Figure5. Research schematic diagram of Yeongnamsarim Myochim theory

26) 기호예학은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 이후,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정시켜 나갔으나 더 이상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사료된다. 송시열 사후 19세기까지 주자대전차의보□주자대전차의절보□주자대전차의증익□주자대전차의관보□주자대전차의집보 등이 집필되면서 송시열의 예학이 더욱 굳건해졌을 뿐 새로운 사상이 형성되지는 못했다.

Table10. Activity of Yeongnamsarim Myochim

구분	생몰년	주요내용/세부내용
이황	1501-1570	◦ 주자사철오 간행, 제사 건립에 묘침적용 → 고제 적용에 대한 유연한 입장 견지
김성일	1538-1593	◦ 의례방통도의 국내 보급, 묘침 용어사용 → 후학들에 의해 묘침 연구 계승
기대승	1527-1572	◦ 문소전 증축 논의(실용주의적 입장) → 옥천서원기에서 묘침 용어 사용
조호익	1545-1609	◦ 가례고증 집필, 중국에서의 이해 → 의례석궁에 대한 문제제기
정구	1543-1620	◦ 오선생예설분류 집필 → 궁실(천자)과 당실(사대부)의 구분
신식	1551-1623	◦ 문암서원 건립, 의례고증 등 집필 → 철저한 묘침 적용(김장생과 교류)
정경세	1563-1633	◦ 도남서원口항산서원 건립 주도 → 현실에 맞게 과감한 수용(절충)
황종해	1579-1642	◦ 정구와 김장생에게 동시 수학 → 향교의 전묘후학 비판(위계 고민)
허목	1595-1682	◦ 영남 예학의 선봉(송시열과 대립) → 근거남인학파로 연결, 실용주의
유취문	1773-1827	◦ 김장생의 궁려도 비판 → 협실과 방의 분리구성

### IV-3. 묘침제의 실제사례

김장생의 묘침이론에 의해 건립된 서원으로는 황산서원(죽림서원)이 대표적이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현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보물 제1569호) 등이 영건되었다<sup>27)</sup>. 현재 응도당의 바닥은 모두 마루로 변형되었으나<sup>28)</sup>, 의도적으로 조영된 양영의 설치와 측구멍 및 창호의 흔적 등이 남아있어 본래는 「가례집람」의 건축형식을 준용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9)</sup> 응도당은 예제에서 밝히는 중도리 처마 밑의 양영을 연출하기 위해 어칸은 고주 없이 평주에 대들보를 통으로 걸친 5량가로 구성하여 행례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협칸은 2고주 5량가로

27) 송시열이 쓴 돈암서원 묘정비에는 “사당 앞에 강당 5칸이 있는데, 옛 하옥의 제도를 사용하였다. 문원공이 일찍이 「의례」와 「주자대전」을 고증하여 죽림서원에 강당을 창건하였는데 일체 그 유법을 따랐다. 방(房), 실(室), 당(堂), 상(廂), 서(序), 점(玷), 요(突), 이(隘), 오(奧), 루(漏), 의(依), 진(陳), 호(戶), 유(牖)를 갖추고 응도당이라 하였다.(사계전서 제49권)  
28) 응도당(2011). 정밀실측조사보고서. 178. 1994년 돈암서원 지에는 후면 우단 1칸과 좌단 2칸 반만 온돌방을 두르고 나머지는 우물마루의 대청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29)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정밀실측조사보고서(2011). 178~179. 거경재와 정의재라는 방이 위치했던 상(廂) 안쪽의 도리 장혀 하단에는 측구멍이 남아있어 벽을 막아 서(序)를 구현한 것으로 보이고, 동방 전면의 상방에는 비녀장을 달았던 흔적이 있어 창호(묘침상 戶)의 설치가 추정된다.

구성하고 의도적으로 보침(補添)을 설치했다. 이는 하옥제에 따른 것으로, 김장생의 <하옥전도>와도 동일하다. 그리고 지금은 흔적만 있지만 대청의 좌우를 벽(=序)으로 막아 묘침제의 상(廂)을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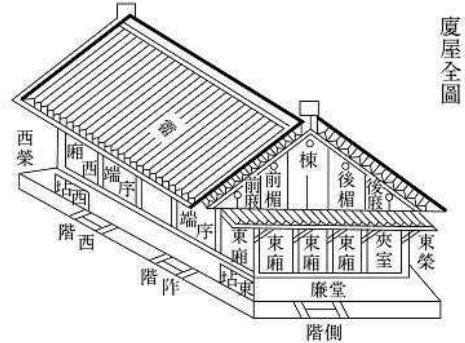


Figure6. Haokjeondo



Figure7. Present of Nonsan Donamseowon, eongdodang(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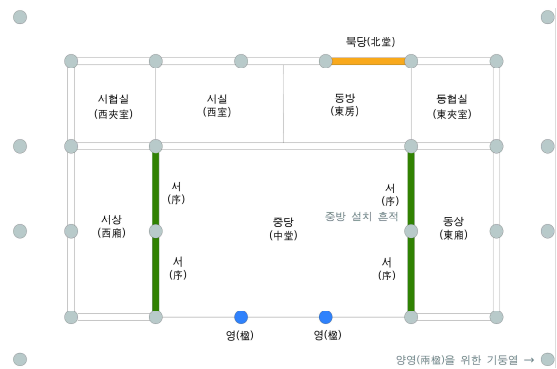


Figure8. Circular estimation for Nonsan Donamseowon, eongdodang



Figure9. Application of Myochim theory for Nonsan Donamseowon, eongdodang (Left:Supplemented eave, Right:Vestige of a column)

## V. 결론

유교문화권에서는 중국 고대 삼대(三代)를 이상적 사회로 인식하고 그때의 제도와 사회문화를 복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제는 원론적인 이론이었을 뿐 실제 건축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담고 있지는 않아서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은 과거 건축연구의 주된 담론이었다. 중국 한당시기부터 정현<sup>30</sup>가공언<sup>31</sup>섭승의<sup>32</sup>주자 등에 의해 고제에 따른 건축형식이 고찰되어 왔으며, 조선에 와서는 대다수 건축물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특히 조선성리학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주자의 가례와 문집은 국내 보급시기와 맞물려 심도 있는 연구대상이 되었고, 17세기에는 예학연구의 심화를 통해 이상적 건축형식인 ‘묘침제(廟寢制)’를 실제 적용<sup>33</sup>실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고제와 현실의 시대적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일부 예학자들의 학문적 성과에만 그친 한계는 분명하다. 묘침제는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했고 실제 영건에 이른 경우는 17세기 정도로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서원들의 사례처럼 궁실제의 기초적인 개념은 일부 반영<sup>34</sup>유지되어 정연성을 갖는 독특한 서원 건축문화를 형성했다. 또한 17세기만큼은 아니지만 당실제(堂室制)<sup>35</sup>묘제(廟制)와 침제(寢制) 등과 같은 묘침 관련 명칭은 이상적 건축원리로서 19<sup>36</sup>20세기에 유학자들의 문집에서 끊임없이 인용되었다. ‘예(禮)’는 이상적인 사회건설을 위한 안정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건축을 제한하는 속박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나 서원은 유학의 교육공간으로서, 예제상의 건축형식이 묘침제라는 매개를 통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 서원건축에서 일반적인 평면 칸수로 사당 3칸, 강당 5칸이 보이는 것과 이에 따라, 5량가 구조의 절대다수 비율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사료된다.<sup>30)</sup>

## 국문초록

유학자들의 유교적 이념들은 서원의 공간구성에서 강하게 발현되어 ‘예(禮)’를 기본으로 하는 독특한 질서를 형성하였다. 유학자들은 중국 고대의 삼대(夏<sup>37</sup>殷<sup>38</sup>周<sup>39</sup>)를 이상적인 사회로 인식하고 각기 신분에 맞는 이상적인 고대의 건축제도인 ‘묘침제(廟寢制)’를 실제 조선사회에 접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원전의 건축형식을 16세기의 조선에서 적용하려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학자별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여 묘침의 관계를 정립해나갔다. 기호사림이 실천주의적 입장에서 고제에 따라 황산서원, 돈암서원, 신항서원, 상현서원, 만동묘 등의 영건에 묘침제를 적용했던 것과 다르게 영남사림에서는 신식의 문암서원을 제외하고는 실제 적용을 위한 실험들이 적었다. 이는 고대의 중국 제도와 17세기 조선의 현실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전제하는 실용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서원의 건축형식은 이러한 인식들의 발로(發露)인 것이다.

周)를 이상적인 사회로 인식하고 각기 신분에 맞는 이상적인 고대의 건축제도인 ‘묘침제(廟寢制)’를 실제 조선사회에 접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원전의 건축형식을 16세기의 조선에서 적용하려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학자별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여 묘침의 관계를 정립해나갔다. 기호사림이 실천주의적 입장에서 고제에 따라 황산서원, 돈암서원, 신항서원, 상현서원, 만동묘 등의 영건에 묘침제를 적용했던 것과 다르게 영남사림에서는 신식의 문암서원을 제외하고는 실제 적용을 위한 실험들이 적었다. 이는 고대의 중국 제도와 17세기 조선의 현실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전제하는 실용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서원의 건축형식은 이러한 인식들의 발로(發露)인 것이다.

## 참고문헌

1. 정기철(1999).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정기철, 심우갑(1998). 주자대전 궁실제 논설의 사적 의미 연구-명당제와 묘침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3. 정기철, 심우갑(1998). 주자대전 의례석공 연구. 대한건축학회.
4. 홍승재(1992). 조선시대 禮書에 나타난 建築的 圖面의 解釋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5. 최경훈(2018). 조선시대 주자대전의 간행에 관한 고찰. 한국서지학회.
6. 장동우(2010). 가례 주석서를 통해 본 조선 예학의 진전과정. 한국동양철학회.
7. 광동엽, 장석하(1993). 도산서원 배치에 관한 연구-도산서당 영건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8. 이종찬(2014). 경기지역 향교<sup>34</sup>서원의 廟<sup>35</sup>學공간간 건축적 위계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전봉희, 이강민(2006). 3칸×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10.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2004). 한국의 경기지역 서원. 국학자료원.
11. 김지민(1993). 「한국의 유교건축」.
12. 조재모(2012). 궁궐 조선을 말하다. 아트북스.
13. 예그린건축사사무소(2011).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논문투고일 : 2019.05.08, 심사완료일 : 2019.09.12, 게재확정일 : 2019.09.19.)

30) 본 연구자는 경기지역에 국한해 「경기지역 향교<sup>34</sup>서원의 廟<sup>35</sup>學공간간 건축적 위계성에 관한 연구(2014, 석사학위논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95.3%에 달하는 사우가 3칸이라는 것과 41.7%의 강당이 5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